

#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마무리

### 익산국도청, "내일 개통 차량통행 시작"

익산지방국도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서 순창군 순창읍(장류단지)에 이르는 국도24호선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오후 3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체 11.8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했으며, 총 8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요시설물로는 길이 240m의 대곡터널과 교량 9개소, 교차로 8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방축 및 봉서교차로는 당초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담국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입체교차로로 변경했으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분담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담양읍에서 순창읍에 이르는 국도 24호선 기존 구간은 선형이 구불구불한데다 도로폭도 좁아 사고위험이 높았다.

도로 여건은 열악한데 차량 통행량은 많아 교통 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 운전자와 주민들로부터 4차로 확장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담양-순창 간 국도가 4차로로 확장되면서 두 지역을 오가는 길이 더 안전해지고, 더 편리하다.

확장공사로 이전보다 운행거리는 13.8km에서 11.8km로 2.0km, 운행시간은 당초 20분에서 10분으로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입체 교차로 2곳 등 8개소에 교차로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북도를 연결하는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담양군과 순창군의 관광자원 연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 조촌동 어린이놀이터 개장식이 열렸다.

## 조촌동 어린이놀이터 개장식

### 군산시, '놀이환경 개선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난 14일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촌동 어린이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개장식에는 기획 단계부터 놀이터 콘셉트 도출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동초등학교 45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성된 놀이터 3곳을 직접 경험하며 각자 놀이지도 워크시트에 각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기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게 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군산시,

씨프로그래밍,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조촌동 권역 3개 어린이공원에는 연령대별 요구에 따라 중학생 이상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필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매달리기, 문덕 오르기 등 다양한 신체놀이가 가능한 '모험의 언덕',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모래놀이 등이 가능한 '부메랑' 등 테마별로 조성됐다.

김임준 시장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의 놀 권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지역 기업체 태양광설치 무상지원

한국서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군산지역 입주기업체에 대규모 지원을 결정해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탤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설비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3일 군산 나운동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김임준 군산시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관영 국회의원 및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협력사업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사업은 군산

지역에 소재한 조선 및 자동차와 연계한 중소기업 중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20여개의 회사에 총 10억원의 규모로 사업비의 25%(최대 6천만원)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 내 입주기업들에게 지원을 약속해 주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상직 이사장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전북도 지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국서부발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전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새일센터, 평가 A등급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경력단절 여성 취업전문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25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이 중 상위 10%의 센터만 A등급으로 선정된다. 익산새일센터는 2018년 현재 여성 2,222명을 취업시켰으며, 새일여성인턴 95명과 6개 기업에 기업환경개선사업자 지원, 여성친화일촌기업과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8개 교육과정을 실시해 15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여성들의 취업 욕구를 유발시키고 취업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은 "익산새일센터 전 직원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7년 연속 A등급이라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익산시와 새일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훈훈한 연말... 익산시의회,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태)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3일 민생현장을 찾아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시의원들은 익산시 황등면 소재 아가페정양원, 금마면 소재 삼정원 등 관련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눴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익산시의회는 사회배려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매년 명절이나 연말



익산시의회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연시에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불우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왕궁보석가공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

익산시가 왕궁보석가공단지의 내부 도로개설을 비롯,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왕궁보석가공단지는 왕궁면 동용리 775번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만2,146㎡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된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조성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32억5,700만원, 공사비 42억원, 용역비 3억2,300만원, 기타 부대비용이 2억2,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보석가공단지 매각을 위해서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전체 필지를 14개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하였고 현재 14필지 중 13필지를 매각하

였으며 매각수입은 24억원"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보석가공단지 미매각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경 용역결과에 따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획지분할 매각 및 내부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선정 익산시, 국비 12억원 확보

익산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17개 사업이 최종 선정, 지역 청년 139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도시재생 마을 활동가 양성사업 △문화관광 콘텐츠 청년인력 양성사업 등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기업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

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용약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본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청년일지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